

마운드 경쟁 시작... '낭만 직구' 유승철 "선발 꿈꾼다"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에비역' 유승철(사진)이 KIA 타이거즈 마운드 전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함평 켈린저스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KIA는 13일 이번 캠프의 첫 라이브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마운드에는 '선발 후보' 유승철, 한승혁과 함께 좌완 이준영, 우완 이준형 그리고 '고졸 루키' 김찬민과 강병우가 올라 처음 타자들을 상대했다.

선발 경쟁 중인 유승철과 한승혁에게 풀린 시선. 한승혁은 두 번째 타자였던 김민식과의 승부에서 바운드 된 공을 좋아리 부위에 맞으면서 일찍 훈련을 마무리했다.

돌발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라이브 피칭이 시작되면서 KIA 마운드 경쟁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됐다.

첫 라이브를 소화한 유승철은 "구위는 좋았는데 타자들 세팅하고 던진 게 처음이라서 공이 좀 뜨는 모습이 있었다. 다음에 더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라이브 전에 불펜 피칭을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30개 넘겨서도 구속이 잘 나왔다. 체력적으로 좋아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라이브 피칭 최고 구속 144km 체력 좋아지고 공에 힘 많이 붙어 결정구로 쓸 포크볼도 맹연습 평정심 숙제 속 성실히 준비할 것

유승철은 이날 최고 144km를 기록했다. 자신의 주 무기인 직구를 바탕으로 선발 경쟁에 나선 유승철은 변화구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라이브 전 불펜에서 서재용 코치로부터 따로 커브 던지는 부분에 대한 지도를 받기도 했다.

유승철은 "커브가 원래 좋았는데 안 좋아져서 코치님께서 손목을 봐주셨다. 각도 수정해주신 뒤로 좋아졌다"며 "제2의 구종을 놓고 커브와 슬라이더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슬라이더가 완성도가 더 높은 것 같다. 변화구 비중을 높일 생각이다. 포크볼도 연습하고 있는데 결정구로 쓸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유승철은 지난해 5월 팀에 합류했다.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준비를 했던 유승철은 지난해 2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복귀전은 치르지 못했다.

전화위복이 됐다. 오히려 차분하게 복귀를 위한 단계를 밟은 유승철은 완벽한 몸 상태로 엔트리진



입은 물론 선발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유승철은 "평균 구속은 더 오를 것 같다.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지난해 2군 3경기를 하면서 평균 구속이 143~144km 정도였다. 구속 저하는 없다. 군대 가서 몸을 규칙적으로 잘 만들어왔다"며 "웨이트도 열심히 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몸이 무거워지는느

임이라 웨이트를 소홀히 했다. 지금은 해보니 나쁘지 않다. 공에 힘이 많이 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순조롭게 선발 경쟁 중인 유승철에게는 '평정심'이 숙제로 남았다.

유승철은 "변화구 잘 배분해야 할 것 같고, 성격적으로 들뜨는 경향이 있어서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짐작하게 하면 코치님들에게도 더 믿을직스러울 것이다"며 "부상을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화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유승철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직구다. 유승철은 '낭만 직구'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는 꿈을 꾸고 있다.

유승철은 "직구는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구종이다. 유튜브 이런 것을 보면 투수를 삼진 잡을 때 대부분 투스트라이크 이후 변화구로 잡는다. 마지막 직구로 삼진을 잡는 걸 선호한다. 직구에 대한 낭만이 있다. '낭만 직구'가 나만의 시그니처다(웃음)"며 "구속 욕심은 있다. 더 높이고 싶은 생각은 있다. 중간투수였기에 모든 걸 쏟아내야 했는데 지금은 보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 구속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선발투수로 한번 내 경기를 위해 마운드 밟는 게 우선 목표다. 더 높은 목표를 가져간다면 풀타임으로 부상 없이 뛰는 것이다"며 "또 하나 포스트 시즌에서 한번 던져보고 싶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챔피온스리그에서 뛰면 선수가 실력이 는다고 했다. 야구도 중요한 경기에서 던지면 내 실력도 늘 것 같아서 포스트 시즌에 던져보고 싶다"고 올 시즌 목표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강도 훈련에도 더 커진 웃음소리... "이게 진짜 캠프"

'김캡틴이 쏜다' 김선빈 아내가 커피차 보내며 '특급 내조' 도

훈련 강도는 세졌지만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KIA 타이거즈가 하나로 뭉쳐 '진짜 캠프'를 치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KIA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국내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올 시즌 캠프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일단 김중국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장소도 광주 켈린저스필드가 아닌 함평 켈린저스필드로 달라졌다. 합숙 훈련도 새로 추가됐다. 안을 들여다봐도 변화가 눈에 띈다.

켈린저스필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쉽 없이 순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훈련 시간도 늘었고 질도 달라졌다.

KIA는 이번 캠프에 앞서 부상 관리와 근력 강화를 위해 스프링스&컨디셔닝(Strength&Conditioning-SC) 코치 2명을 영입했다. 러비 국가대표 팀-LPGA 선수 개인 트레이너, 크로스핏 트레이너

경험을 갖춘 SC 코치들은 고강도 체력 훈련을 이끌고 있다.

엄청난 훈련량으로 소문이 자자한 나성범도 고개를 짚게 만드는 고강도 훈련이 진행되면서 체력 훈련 시간에는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난다.

하지만 선수들은 "진짜 캠프를 하는 것 같다"고 고된 스케줄을 반긴다.

팀의 최고점 최형우는 "지금은 느껴지는 게 없는데 하다 보면 시즌 중에는 버티게 되고, 그러면 효과를 알게 될 것이다. 선수들 몸이 단단해진 게 느껴진다. 몸들이 장난 아니다"며 "운동 끝나고 나면 힘이 없고 하는 것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지난해에는 운동 끝나고도 에너지가 넘쳤다"고 웃음을 보였다.

나성범은 "훈련이 많이 힘들다. 새로운 팀에 와서 하다 보니까 후배들에게 처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더 열정적으로 한다. 양도 많아지고 오랜만에

운동에 많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세다"면서 "이렇게 해 봐야 시즌 중에 힘이 안 떨어지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리그을 대표하는 베테랑 선수들의 이야기다.

후배들 역시 베테랑 선수들이 "오즘 애들은 훈련하는 것도 다르다"고 말할 정도로 욕심을 내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

캠프를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에는 한정된 공간과 적은 훈련량으로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

하지만 올 시즌 선수들은 합숙훈련까지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쉬는 시간 중간에는 켈린저스필드 클럽하우스가 사랑방이 되기도 한다.

함께 밥을 즐기고, 야구 이야기와 정을 나누면서 팀이 하나로 다져지고 있다.

최형우는 "훈련 끝나면 동생들은 여기서(클럽하우스)에서 여가 생활하고, 따로 훈련도 한다. 외



지난 11일 캠프 선수단에 주장 기념품을 낸 KIA 김선빈(왼쪽)이 황대인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에서 하던 캠프 느낌으로 하나씩 작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11일에는 캠프에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다. 김선빈의 주장 선임을 기념해 아내 송미지씨가 캠프에 커피차를 보내며 '특급 내조'를 했다.

고된 훈련을 끝낸 선수들은 모처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캠프의 낭만'을 즐겼다.

박찬호는 "정말 캠프를 하는 것 같다. 선수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좋다"고 달라진 캠프를 이야기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스크 투혼' AI페퍼스 시즌 3승 해냈다

박경현·이한비·엘리자벳 맹활약 V리그 흥국생명예 3-1 역전승

꿈같은 3승을 이뤄낸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시즌 초 목표인 5승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AI페퍼스는 지난 1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3-1(18-25, 25-22, 25-21, 25-14)로 꺾고 3승을 달성했다. 지난 1월 18일 기업은행전 승리 이후 4경기만에 따낸 3승이다.

AI페퍼스는 현재 3승 25패로 승점 11점, 팀 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6위 IBK기업은행에 승점 14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흥국생명전 승리는 AI페퍼스가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더욱 값졌다.

최가은은 경기 전 웨이트 훈련을 하다 실수로 발등을 다쳤다. 박은서는 지난 7일 왼쪽 발목 뺏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군에 이름을 올렸다. 부족한 레프트 공격수 자리를 김세진이 채웠고, 리베로를 문슬기 홀로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상가상으로 여자배구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해야 했지만, 범실에 주의하며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간 끝에 흥국생명을 꺾는 데 성공했다.

이날 박경현·이한비·엘리자벳은 모두 20점을 올려 활약했으며, 공격적응율도 각각 27.61%·28.83%·30.67%로 고르게 분포됐다.

수비 집중력도 돋보였다. 문슬기는 이날 41회 디그 시도 중 40회를 성공하며 대활약했다. 3세트 14-13 상황, 김미연의 퀵오픈을 손 끝에 걸친 디그로 불을 살려내는 등 중요한 승부처에서 수비를 성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오랜 숙제였던 '범실 줄이기'도 확연히 나아졌다. 1세트에서는 범실 10회를 기록하며 패배했지만, 2·3·4세트를 합쳐 범실 12회만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흐름을 잘 타고, 범실을 줄여나갔던 게 잘 통했다"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가 나오는 등 흥국생명의 분위기가 가라앉은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이기도록 하겠다. 경기가 잘 안 풀릴 땐 박사랑·서재현·박은서·김세진 등 신인들을 투입해 분위기 전환을 하는 등 다양한 전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V리그 여자부 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20일까지 잠정 중단됐다. 11-20일 경기는 순연되며, 2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3연승 신바람

송혜수 등 주전들 고른 득점 경남개발공사 꺾고 2위 도약

광주도시공사가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 리그 2위로 도약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2일 강원도 삼척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남개발공사와 경기에서 39-24(17-10, 22-14)로 대승을 거뒀다. 올시즌 첫 3연승을 달린 광주도시공사는 7승 5패(승점 14점)로 리그 순위 2위에 올랐다.

광주도시공사는 상위권 잔류를 위해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승패가 같은 인천시청이 승자승 원칙에 따라 광주에 밀려 3위에 포진하고 있다. 게다가 2위부터 6위까지 승점이 2점차밖에 나지 않는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주전들의 고른 득점으로 여유있게 승리했다.

송혜수(7골·5어시스트), 원선필(6골·2어시스트), 정현희(6골·4어시스트), 강경민(6골·4어시스트), 서아루(6골·1어시스트) 등이 올시즌 가장 많은 39득점을 합작했다. 서아루는 경기 MVP에 선정됐다.

광주도시공사는 피봇 원선필에게 슈팅 기회를 몰아주는 전략으로 전반 시작 이래 9분까지 6-0으로 앞서가며 경남개발공사의 기세를 꺾었다. 상승세를 탄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종료전까지 경남개발공사의 득점을 9점으로 틀어막았다.

골키퍼 박조은은 경남개발공사의 슈팅 22개 가운데 10개를 막아내는 완벽한 선방쇼를 펼쳤다. 전반전에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2골을 쏟아부어 손쉽게 승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해적: 도깨비 깃발
- 2관 해적: 도깨비 깃발, 쌍2게더
- 3관 킹메이커
- 4관 나일 강의 죽음
- 5관 해적: 도깨비 깃발, 355
- 6관 나일 강의 죽음
- 9관 나일 강의 죽음, 킹메이커
- 7관 새내끼들 해적: 도깨비 깃발, 특수, 경관의 피
- 8관 새내끼들 킹메이커, 쌍2게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만년이지나도 변하지않는게 있어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시즌
조진주 & 앙상블 아파시오나토
일시 : 2022.02.24.(목)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